

‘역전 드라마’ 박현경, 이예원 꺾고 데뷔 첫 ‘매치퀸’ 등극



지난해 준우승 설욕... 결승서 18번 홀 끝내기 버디

박현경이 1년 전 준우승을 설욕하고 매치퀸에 올랐다. 박현경은 19일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총상금 9억원) 결승에서 18번 홀(파5) 끝내기 버디로 이예원을 1홀 차로 꺾었다.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서경 레이디스 클래식 이후 6개월여만의 우승이자 통산 5승째다.

우승 상금 2억2500만원을 받은 박현경은 상금랭킹 1위(4억8523만원)에 대상 포인트 1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박현경은 작년 이 대회 결승에서 성유진에게 졌던 아쉬움을 씻어냈다.

지난 12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 이예원은 박현경에게 막혀 2022년에 이어 이 대회 두 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4번째 매치플레이 대회에 출전한 박현경은 18승 1무 3패로 역대 4번째로 높은 승률을 찍었다.

박현경은 “마지막 버디 퍼트를 할 땐 손이 너무

떨렸다. 이번 시즌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반기에 시즌 첫 우승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현경은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

1번 홀(파4)에서 홀에 딱 붙는 샷으로 손쉽게 버디를 낚아 앞서 나갔다.

4번 홀(파4)에서는 이예원이 두 번째 샷 때 샹크를 내며 볼을 숲으로 보낸 뒤 홀을 포기해 2홀을 앞선 박현경은 5번 홀(파4)에서 1m 버디를 잡아 3홀 차로 달아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예원은 샷 정확도가 뚝 떨어져 일방적인 경기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예원은 7번 홀(파3) 1m 붙여 버디를 잡아내며 반격에 나섰다.

10번 홀(파4)에서는 그린을 넘겼지만, 10m가 넘는 칩인 버디를 기세를 올렸다.

박현경은 10번 홀에서 4m 버디로 응수했지만, 살아난 이예원은 12번 홀(파5)에서 3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1홀 차로 좁혔다.

둘은 14번 홀(파3)에서 그린을 놓쳤는데 박현경의 어프로치는 홀을 5m나 지나갔고 이예원은 1m에 붙었다. 박현경의 퍼트파트가 빛나면서 승부

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예원은 15번 홀(파4)에서도 박현경의 어프로치 실수를 틈타 경기를 뒤집었다.

박현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17번 홀(파4)에서 3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이예원을 따라잡은 박현경은 18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핀 1.5m 앞에 떨쳤다.

이예원이 먼저 시도한 3m 버디 퍼트가 홀을 살짝 빗나갔고, 박현경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현경은 이날 오전에 치른 4강전에서 이소영을 2홀 차로 이겨 2년 연속 결승에 올랐다.

이예원은 4강전에서 국가대표 동료이자 데뷔 동기인 장타자 윤이나를 3홀 차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소영은 3~4위전에서 윤이나를 5홀 차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3위 상금은 7650만원으로 4위 상금 5400만원보다 2250만원 많다.

이소영은 이 대회 개인 최고 순위를 남겼다.

두산 매치 플레이에 처음 출전하고도 4강까지 오른 윤이나는 최근 2개 대회에서 준우승-4위라는 성과를 냈다.

/연합뉴스



박현경이 19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ICC에서 열린 '2024 두산 매치플레이' 결승전 3번 홀에서 아이언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폐막했다. 지난 16일 열린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전남도체육회 제공>

영호남 어르신 화합·우정 증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마무리

건강상·도의장상 등 시상

영·호남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한마당인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마무리됐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완도청해진스포츠펠터에서 진행된 이번 체전에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과 경북 어르신생활체육 선수단 80명 등 2300여명이 9개 종목에 참가했다.

이번 체전은 선수들의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는 의미에서 시·군 종합 순위를 가리는 대신 종목별 시상식이 이뤄졌다.

대회결과 ▲게이트볼 구례 ▲공도 완도 ▲그라

운드골프 광양 ▲산악 강진 ▲소프트테니스 담양 A ▲배드민턴 목포 ▲체조 담양 ▲탁구 광양 ▲파크골프 완도가 종목별 우승을 차지했다.

종목별 최고령 참가자의 활발한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도지사가 수여하는 건강상은 ▲게이트볼 김동구(94) ▲공도 지홍상(89) ▲그라운드골프 신병순(91) ▲배드민턴 박정수(82) ▲산악 남춘자(79) ▲소프트테니스 김재곤(88) ▲체조 박보인(91) ▲탁구 남기만(85) ▲파크골프 박해주(82) 어르신에게 돌아갔다.

개최지 최고령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도의장상 건강상은 체조 종목의 황안진(88) 어르신이 받았다.

이어 우호교류에 대한 감사와 건강 기원의 의미를 담아 경북선수단에 수여한 도체육회장 특별상 수상자로 게이트볼 이유석(83), 탁구 김경자(80) 어르신이 이름을 올렸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어르신들이 같고 닮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우의를 다질 수 있어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화합과 우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경북 간 생활체육 우호 교류는 2014년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20회 대회는 내년 영광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은 조정 종목 도체육회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4일간의 열전’ 전국장애학생 체전 폐막

광주 38개·전남 74개 메달 획득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화합 무대’가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목포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이번 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828명의 선수단이 17개 종목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번 체전의 개최지인 전남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23개 총 74개 메달을 따내며 순항했다.

특히 전남은 육상에서 4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조정연(13)을 비롯, ‘3관왕’ 국사랑(13), ‘2관왕’ 노연희(13)를 앞세워 27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했다.

광주시는 금메달 12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0개 총 3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역도 송은결(13)은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며 사체육회 선수단 최다관왕에 등극했다. 송은결은 지난 제17회 전남장애학생체전에서 동메달을 3개 획득하며 우수한 기량을 뽐냈다.

이외에도 경기도가 총 185개(금67개, 은62개, 동56개)로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또 수영에서 김재훈(15-경기)이 5관왕, 손세운(14-제주)이 3대회 연속 3관왕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깊이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경기장을 활기차게 만들어 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안전체전’이자 ‘문화체전’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회 첫 날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정진안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사·도 선수단, 초청인사,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이 개최됐다.

개회식에선 꽃과 나비를 키워드로 레이저, 미디어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제공연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부대행사로 나비 날리기,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대회 기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도 얻었다.

주 개최지인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댄스퍼레이드, 메가페스티벌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무안, 여수, 광양 등에서도 청소년 드림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공연, 버스킹 등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또 대회 기간 각종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체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각종 현장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 특히 분야별 상황실 등 체계적 종합상황실 운영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파리 패럴림픽 D-100, 한국 10개 종목 60여장 출전권 획득

장애인의 축제를 넘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2024 파리 패럴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7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 17일 후인 현지시간 8월 28일 개막해 9월 8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 종목 수는 총 22개로 도쿄 대회와 같다. 육상, 양궁, 배드민턴, 5인제 축구, 보치아, 카누, 사이클, 승마, 골프, 유도, 파워리프팅, 조정, 사격, 좌식 배구, 수영, 탁구, 트라이애슬론,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 럭비, 휠체어 테니스

에서 총 4000여명의 선수가 54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금메달 수는 파리 올림픽(329개)보다 220개가 더 많다.

패럴림픽은 같은 종목 안에서 또 장애등급에 따라 경기가 나뉘기 때문에 금메달 수가 훨씬 많다.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1988 서울 대회에서 금메달 40개를 딴 것을 시작으로 2008 베이징 대회까지 6회 연속 두 자릿수 금메달을 획득하며 장애인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2 런던 대회에서 9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7개로 금메달 수가 줄더니 도

료 대회에선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2개로 종합순위 41위에 그쳤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초종목 육성, 꿈나무-신인 선수 발굴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큰 5개 종목(보치아, 배드민턴, 사격, 탁구, 태권도) 20여명의 우수선수를 선정해 맞춤형 훈련과 스포츠 의과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은 현재 10개 종목 60여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남은 시간 동안 5~7개 종목에서 10~20장의 쿼터를 추가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